눈이 오면 더 아름다워지는 스위스 뷰 포인트.

오, 누르기만 해도 작품일세

관광객들 모두가 담아오는 일상적인 풍경 말고
진부한 앵글은 저리 가라
대중교통으로 쉽게 찾아갔는데, 대단한 자연 펼쳐져
눈앞에 눈꽃 풍경 펼쳐지는 진기한 명소들
파노라마 기차에서 잠시 내려 겨울왕국 품속에 머물러 보아도 좋아

알프스에 소복이 쌓인 눈처럼, 도시의 지붕 위로 새하얀 눈이 밤새 조용히 내려앉고, 아침이 되면 새하얗게 변한 나뭇가지 위로 햇살이 부서져 내린다. 겨울 여행에서 대단한 사진을 찍겠다는 것이 혹, 너무 큰 욕심이 아닐까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스위스 곳곳에 숨어서 예민한 감각을 가진 여행자들을 기다리고 있는 포토 포인트는 대중교통으로 쉽게 찾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케이블카 역이나 산악기차 역에서, 그리고 달리는 기차 안에서 대단한 풍경을 만날 수 있다. 눈이 오면 더욱 고풍스러워지는 스위스 최고의 전망 포인트를 소개한다.

1. 루체른(Luzern)의 샤또 귀취(Chateau Gütsch)
루체른보다 더 평화로운 겨울 도시를 찾아보기는 힘들지도 모른다. 주민들과 숍 주인들, 사업가들은 서로의 이름을 잘 알고 있을 정도로 가까운 사이다. 이들에게 겨울은 특히 더 가족같이 따사로운 계절이다. 특별히, 꿈결 같은 불빛이 로이스(Reuss) 강을 따라 나 있는 길, 로이스슈테그(Reusssteg)를 밝혀줘, 연인들의 산책로가 되어준다. 이런 루체른의 구시가지가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전망 명소가 있다.
바로, 샤또 귀취다. 1888 년 노이슈반슈타인(Neuschwanstein) 성을 본떠 만든 루체른 호텔의 아이콘, 샤또 귀치는 스위스에서도 손꼽힐 정도로 아름다운 곳에 있는 호텔 중 하나다. 세계적인 인테리어 디자이너, 마틴 로렌스 불라드(Martyn Lawrence Bullard)가 섬세한 디테일에 신경을 써가며 샤또 귀취를 새롭게 탄생시켰다. 샤또 귀취에서 내려다보는 루체른 호수와 구시가지의 정겨운 지붕들, 그 뒤로 펼쳐진 알프스가 기막힌 풍경을 만들어 준다.

주소
Chateau Gütsch
Kanonenstrasse
6003 Luzern

2. 생갈렌(St. Gallen)의 드라이린덴 파라이배더(Dreilinden Freibäder)
겨울, 생갈렌 수도원은 그만의 독특한 매력을 발산한다. 눈 덮인 유네스코 문화유산은 은밀한 면모를 드러낸다. 구시가지에 우뚝 솟아난 대성당의 쌍둥이 첨탑도 생갈렌의 겨울 야경을 밝힌다.
생갈렌의 구시가지와 주변부의 자연을 한눈에 보여주는 전망 포인트가 있다.
드라이린덴 파라이배더다. 세 개의 인공 연못을 뜻하는 '드라이 바이에렌(Drei Weieren'은 직물 표백 산업과 소방차 물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1610 년에 만들어졌다. 지금은 야외 수영장과 고요가 서려 있는 공원으로 로컬들에게 사랑 받는 공간이다. 여름에는 수영과 피크닉을, 겨울에는 스케이트를 즐기려는 시민들이 많다. 보덴제(Bodensee) 호수와 생갈렌 구시가지 및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수도원 대성당의 풍경이 한눈에 들어와 스위스에서 가장 아름다운 야외 수영장 중 하나로 손꼽히기도 한다.

Switzerland Tourism
13Fl.,Dongbu Dadong Bldg.,Da-Dong, Jung-Gu, Seoul, Rep.of Korea, Telephone +82 (0)2 3789 3200 Fax +82 2 3789 3255,
www.MySwitzerland.com It is our pleasure to help plan your holiday.

주소
Dreilinden Freibäder
Dreilindenstrasse 50
9011 St.Gallen

3. 취리히(Zurich)의 린덴호프(Lindenhof)
취리히에 눈이 쌓이면 이 다채롭고 활기찬 도시 위로 정적이 내려앉는다. 뽀드득 소리를 내며 거리를 거니는 취리히 시민들은 이 고요를 한껏 즐기는 표정이다. 새하얀 베일을 쓴 듯한 교회 첨탑들도 취리히 야경을 빛내 준다. 취리히 구시가지를 걷는 것만으로도 감성이 충만해진다.
그중 최고의 전망대는 린덴호프다. 취리히 구시가 중간 언덕 위에 자리한 광장으로, 리마트(Limmat) 강을 따라 이어지는 취리히의 구시가지를 감상할 수 있다. 예전에 로마 시대 성곽이었던 곳으로 지금은 공원으로 조성되어 있다. 건너편으로는 취리히 대학과 취리히 공대가 보인다. 연인들이 사랑을 속삭이거나, 동네 어르신들이 공원 바닥에 마련되어 있는 대형 체스판에서 시간을 보내는 곳이기도 하다.

주소
Lindenhof
8001 Zürich

4. 베른(Bern)의 로젠가르텐(Rosengarten)
겨울이면 베른의 구시가지는 고요한 정적에 휩싸인다. 아레(Aare) 강의 촉촉한 공기와 독특한 향기가 더해져 베른 구시가지 골목 골목을 메운다. 구시가지의 촘촘한 지붕 위로는 하얀 눈이 소복하게 쌓여 간다. 베른 구시가지의 6km 를 따라 따뜻한 조명이 뻗어나간다. 시계탑과 대성당의 조명은 밤 풍경을 위엄있게 만들어 주고 있다. 중세부터 고집스럽고 온전하게 보존되어 온 베른의 구시가지는 1983 년부터 유네스코 세계 유산으로 지정되어 보 받고 있다. 이렇게 진귀한 베른의 구시가지를 가장 잘 감상할 수 있는 뷰포인트들은 구도심 밖에 위치한다. 그중 걸어서 쉽게 찾을 수 있는 로젠가르텐 공원은 베른 구시가지를 가장 잘 조망할 수 있는 곳이다. 언덕 위에 자리해 있어 베른과 아레(Aare) 강의 파노라마를 고스란히 보여 준다. 공원 안에 있는 레스토랑에서 따뜻한 음료를 마시거나, 제대로 된 식사를 하면서 쉬어갈 수 있다.

주소
Alter Aargauerstalden 31b
3006 Bern

5. 몽트뢰(Montreux)의 슈맹 드 라 프로메나드(Chemin de la Promenade)
크리스마스 마켓으로 유명한 겨울 대표 마을이다. 호수 위로 썰매를 타고 하늘을 나는 산타가 설치되고, 지붕 덮인 장터부터 메인 도로를 따라 정겨운 장터가 펼쳐진다. 아기자기한 조명과 낭만이 출렁이는 호수가 몽트뢰의 겨울을 로맨틱하게 물들인다.

긴 호반 산책로는 브베이(Vevey)부터 연결되는데, 몽트뢰를 지나 시옹(Chillon) 성까지 죽 이어져 있어 호수를 따라 긴 겨울 산책을 즐기기 좋다. 시옹성 뒤편으로 연결된 호숫가 길을 따라 걷다 보면

시옹성이 소유하고 있는 포도밭도 나온다. 레만(Léman) 호수와 그 뒤로 펼쳐진 알프스, 눈 내려앉은 포도밭에 시옹성까지 등장하는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포토 포인트가 있다. 운이 좋으면 기차까지 사진에 담아볼 수 있다. 먼저, 시옹성 건너편에 있는 버스 정류장에서 몽트뢰행 버스를 타고, "베이토(Veytaux), 갸흐(Gare)" 정류장에 하차한다. 버스 길인 애비쥬 드 시옹(Avenue de Chillon) 도로를 따라가다가 포도밭 쪽으로 조금 내려가면 시옹성이 뒤편으로 등장하는 곡선 구간을 만날 수 있다.

주소
Chemin de la Promenade 1
1820 Veytaux

7. 몽트뢰(Montreux)의 로셰 드 녜(Rochers-de-Naye)
레만호의 작은 마을 몽트뢰부터 로쉐 드 녜의 탁 트인 정상까지는 안락한 톱니바퀴 열차로 채 한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해발고도 2045m 의 정상에서는 특별한 파노라마가 펼쳐지는데, 바로, 스위스와 프랑스의 알프스와 함께 레만호의 풍경이 함께 넘실대는 장면이다. 전나무 숲으로 내려앉은 눈송이가 햇빛에 반짝인다. 스위스와 프랑스 알프스를 넘어 아이거(Eiger)에서 몽블랑(Mont-Blanc), 그리고 더 멀리 레만 호수까지 뻗어 있는 파노라마가 겨울 빛깔로 가득하다.
여름에는 쉬운 하이킹 트레일을 비롯해 알프스의 두더지인 마모트(Mormot)을 볼 수 있다. 전 세계 1000 주의 식물을 볼 수 있는 알파인 가든(Alpine Garden)도 있다. 몽트뢰 기차역에서 로셰 드 녜로 향하는 기차가 출발한다.

주소
Rochers-de-Naye
1820 Veytaux

8. 체르마트(Zermatt)의 르 쁘띠 빌리지(Le Petit Village)와 고르너그라트(Gornergrat)
세상에서 가장 많이 사진 찍힌 산이라는 마테호른(Matterhorn)이 내려다보는 마을, 체르마트는 세계적으로 정평 난 스키 리조트다. 유럽에서 가장 높은 케이블카 역(3,883m)에서 스키를 타고 마을까지 내려올 수 있고, 톱니바퀴 열차를 타고 고르너그라트(Gornergrat: 3,089m) 산 정상에서 스키를 탈 수도 있다. 겨울이 성수기인 마을답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기로 꼽히는 대단한 겨울 풍경을 만날 수 있다.

먼저, 체르마트 마을 위로 눈 덮인 정경을 마음에 담고 싶다면, 르 쁘띠 빌리지로 가면 된다. 뮈리니(Mürini) 골목, 숲 끝자락에 있는 전망대로, 마테호른을 배경으로 샬레가 옹기종기 모여있는 정겨우면서도 웅장한 모습이 한눈에 들어온다. 사진을 찍어서 그대로 크리스마스카드로 써도 좋을 정도다. 특히 일출 사진과 야경 사진으로 유명한 장소다. 체르마트 지도에서 "Mürini"를 검색해서 골목을 따라가면 된다.

주소
Photopoint Le Petit Village at Mürini
3920 Zermatt

두 번째는 고르너그라트다. 4,000m 급 봉우리 29 개가 병풍처럼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봉우리, 고르너그라트 정상에서는 스위스에서 가장 높은 산인 두포우르슈피체(Dufourspitze: 4,634m)와 알프스에서 세 번째로 긴 빙하인 고르너(Gorner) 빙하가 있는 파노라마가 펼쳐진다. 이 풍경으로 안내하는 것이 바로, 고르너그라트반 기차로, 1898 년부터 운행되는 스위스에서 가장 오래된 전기 톱니바퀴 열차이다. 겨울 왕국으로 안내하는 듯, 짜릿한 고가를 지나고 터널과 깊은 숲속, 계곡과 산정 호수를 지나는 여정 자체도 무척 아름답다. 고르너그라트 정상 역에 내리면, 전망대로 향하는 길이 있다. 약간의 언덕길을 오르면 스위스 최고라 해도 과하지 않을만한 파노라마가 등장한다. 고르너그라트 정상에 있는 스위스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는 호텔, 3100 쿨름호텔 고르너그라트(Kulmhotel Gornergrat)의 레스토랑에서 미식 체험을 즐겨도 좋다.

Gornergrat Bahn Bahnhof
3920 Zermatt

9. 리더알프(Riederalp)의 호텔 로얄(Hotel Royal)
해발고도 1,905m 에 위치한 리더알프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알레취빙하(Aletsch Glacier)와 알레취 숲 끝자락에 자리한 마을이다. 때문에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알레취 빙하를 가까이서 체험해 보고자 한다면 리더알프로 가면 된다. 리더알프는 뫼렐(Mörel)에서 케이블카로 올라갈 수 있다. 알프스의 4000m 급 봉우리가 에워싸고 있는 리더알프는 경사가 급한 언덕에 자리한 마을이라 전면에 펼쳐진 계곡의 파노라마가 기막히다. 겨울이면 햇살 좋은 언덕에서 스키를 즐기려는 인파가 모여든다. 신비스러운 빙하의 기운이 느껴지는 알프스 마을에서 설국의 풍경을 마음껏 담아볼 수 있다.
그 중, 호텔 로얄 옆쪽의 언덕에서 바라보는 리더알프와 주변 알프스의 풍경은 감탄스럽다. 빙하 마을 위로 내려앉는 노을에 안겨 있자면, 평화스럽기 그지없다.

주소
Hotel Royal
Furrerstrasse 14
3987 Riederalp

10. 리기(Rigi)의 키오스크 카이스보덴(Kessiboden)
설원이 가득 펼쳐진 낭만적인 리기산으로 향하는 리기 철도는 비츠나우(Vitznau) 선착장에서 출발하는 비츠나우 리기반(Vitznau-Rigi Bahn)과 아르트 골다우(Arth Goldau)에서 출발하는 아르트 리기반(Arth-Rigi-Bahn), 그리고 벡기스(Weggis)에서 리기 칼트바드(Rigi Kaltbad)를 연결하는 케이블카로 운행된다. 아빠 손 잡고 썰매 타러 가는 아이들과 겨울 하이킹을 즐기러 기차를 탄 노부부의 모습이 정겹다. 리기 정상에 오르면 호수 너머로 펼쳐진 알프스 봉우리가 새하얗다. 리기 정상에서 약간만 걸어 내려오면 정겨운 풍경을 담을 수 있는 곳이 있다. 카이스보덴이라는 카페다. 리기 정상의 호텔 리기 쿨름(Hotel Rigi-Kulm)에서 이어지는 쿨름베그(Kulmweg) 길을 따라 내려오다 보면, 오른쪽으로 정겨운 예배당이 보인다. 예배당을 잠시 둘러보고, 다시 쿨름베그를 따라 걸어 내려가면 곧 왼편으로 카이스보덴이 눈에 띈다. 언덕 아래로 지나가는 리기 기차를 담기에도 좋은 장소다.

주소
Kessiboden
Kulmweg 6, 6410

Rigi Kulm

11. 쉴트호른(Schilthorn)의 쉴트그라튀시(Schiltgrathüsi)
이 세상에 제임스 본드를 모르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일부에 그칠 것이다. 쉴트호른(Schilthorn) 정상에 있는 회전 레스토랑에서 촬영된 1960 년대의 007 영화를 기억하는 사람은. 뮈렌이라는 마을은 쉴트호른으로 향하는 출발점이 되어주는 작은 알프스 산골 마을이다. 해발고도 1,650m 에 자리한 마을은 베른(Bern) 칸톤에서 제일 높은 곳에 있는 거주지다. 차량 진입이 금지되어 있어 더욱 청명한 마을이다. 뮈렌에서 케이블카를 타고 쉴트호른 정상에 오르면 라우터브루넨(Lauterbrunnen) 계곡과 아이거(Eiger), 융프라우(Jungfrau), 묀히(Mönch) 봉우리가 눈앞에 장대하게 펼쳐진다. 정상의 회전 레스토랑, 피츠 글로리아(Piz Gloria)과 야외 전망대에서 바라보는 파노라마도 대단하지만, 좀 더 소박한 알프스 겨울 풍경을 담고 싶다면, 쉴트그라튀시 산장 레스토랑으로 향해보면 좋다. 뮈렌과 쉴트호른을 잇는 스키장 사이에 자리한 레스토랑으로, 홈메이드 치즈와 수프, 케이크 등 시골스러운 메뉴도 맛볼 수 있어 쉬다 가도 좋다. 겨울에는 스키 리프트 중, 쉴트그라트(Schiltgrat) 리프트로 찾아갈 수 있다.

주소
Schiltgrathüsi
3825 Lauterbrunnen

12. 사스페(Saas-Fee)의 발리저호프 그랜드 호텔(Walliserhof Grand-Hotel & Spa)
14 세기까지 사스(Saas) 계곡에는 단 한 개의 마을만 있었다. 바로, 사스였다. 사스 마을에서 네 개의 마을이 생겨났다. 이 네 개의 마을을 가리켜, 사스페라 부르게 되었는데, “알프스의 진주”라는 별명답게 세계적인 명성이 대단하다. 13 개의 4 천 미터급 봉우리가 이 빙하 마을을 에워싸고 있다. 마을 자체는 해발고도 1,800m 에 있고, 차량 진입이 금지되어 있다. 사스페 마을은 ‘샬레’라 불리는 목조주택이 옹기종기 모여있는데, 햇빛에 그을려 색이 점점 더 짙어지면서 그 매력을 발산한다. 그래서 새롭게 짓는 건축물에는 대단한 규제가 따른다. 이런 아름다운 풍경을 담을 수 있는 장소가 있다.
바로, 마을 가운데에 있는 발리저호프 그랜드 호텔 & 스파다. 대형 샬레 너머로는 웅장한 알프스 봉우리가 솟아있다. 그 위로 내려앉은 새하얀 눈이 정겨운 풍경을 만들어 낸다. 호텔에서는 알프스 정통 방식대로 스파를 즐기며 피로를 풀 수 있고, 세 개의 레스토랑에서도 수준 높은 미식 체험을 즐길 수 있다.

주소
Walliserhof Grand-Hotel & Spa Saas-Fee
Dorfweg 1
3906 Saas-Fee

13. 슈토스(Stoos)의 링슈트라쎄(Ringstrasse)
루체른(Luzern)에서 45 분 거리에 있는 슈비츠(Schwyz)에서 스키장으로 오르는 퓨니큘러가 운행된다. 스위스에서도 가족 단위 휴양지로 유명한 슈비츠 칸톤에 있는 산악 마을, 슈토스(Stoos)에는 프론알프슈톡(Fronalpstock: 1,922m)이라는 산이 있다. 정상에서부터 이어지는 스키장을 따라 내려오며 탄성을 자아내는 호수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데, 열 개나 되는 호수가 스키장을 따라 이어진다. 주변으로는 필라투스(Pilatus), 리기(Rigi), 샌티스(Säntis)를 포함한 알프스 봉우리가 에워싸고 있다. 이렇게 정겨운 마을과 그 너머로 펼쳐진 알프스 봉우리, 새하얀 지붕들, 그 위로 반짝이는 별을 담아볼

수 있는 장소가 있다. 바로, 마을 끝자락에 있는 링슈트라쎄다. 프론알프슈톡으로 향하는 케이블카가 있는 역과 만나는 길인데, 이 길을 따라 마을 쪽을 향해 걷다 보면, 래르헨베그(Lärchenweg)라는 작은 골목길이 나오는데, 이 길 주변부의 언덕에서 대단한 풍경을 만날 수 있다.

찾아갈 길
Ringstrasse – Lärchenweg
Stoos

14. 티틀리스(Titlis)의 클리프 워크(Cliff Walk)
세계 최초의 회전 곤돌라로 유명한 티틀리스는 중앙 스위스 알프스와 빙하의 파노라마를 선사한다. 곤돌라가 정상에 도착하는 마지막 600m 구간 동안 360 도 회전을 1 회 하며 사방의 파노라마를 골고루 보여주는 친절함도 갖췄다. 알프스의 하늘을 둥실 떠오르며 5 분 동안 천천히 회전하는 티틀리스의 회전 곤돌라에서 베르네제 오버란트(Bernese Oberland), 우리 알프스(Uri Alps), 오브발트(Obwald)의 멜히탈(Melchtal) 계곡, 루체른 호수의 설국 파노라마를 감상할 수 있다. 티틀리스 정상에서는 빙하 체어리프트를 타고 빙하의 크레바스를 관찰할 수 있으며, 350m 나 되는 빙하 동굴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다. 눈썰매도 빠질 수 없는 묘미다. 이 빙하 세계로 한 발짝 더 들어가 볼 수 있는 전망대가 있다. 바로, 아찔한 구름다리, 클리프 워크다. 해발고도 3,041m 위에 설치된 흔들다리를 건너며 겨울 왕국을 만나볼 수 있다. 티틀리스 산등성이에서도 500m 나 떨어진 공중에 설치되어 있는 티틀리스 클리프 워크는 150 개의 스릴 넘치는 스텝으로 이루어져 있다. 유럽에서 가장 높은 현수교이기도 한 이 다리를 건너다보면, 티틀리스 산 깎아지른 벼랑 밑으로 펼쳐진 빙하가 한눈에 들어온다. 1m 너비에 100m 나 되는 길이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 보면 알프스의 숨은 비경을 짜릿하게 감상할 수 있다. 티틀리스 케이블카 정상역에서 쉽게 이어진다. 케이블카를 타고 내려오면서 감상하는 엥겔베르크(Engelberg) 마을 풍경도 대단하다.

주소
Titlis Cliff Walk
6390 Engelberg

15. 글래시어(Glacier) 3000 의 정상 레스토랑 언덕과 티쏘 피크 워크(Peak Walk by Tissot)
불어권에 있는 가장 큰 규모의 스키장이고, 그래서 스위스 불어권 가족들이 많이 찾는다. 총 125km 의 슬로프가 산속 가득 얽히고설켜 있다. 해발고도 3,000m 에는 스노우 파크도 마련되어 있다. 스위스 태생의 건축가, 마리오 보따(Mario Botta)가 설계한 레스토랑에서는 레만(Léman) 호 지역의 대단한 겨울 파노라마를 감상할 수 있다. 특히, 불어로 '악마'란 뜻의 레 디아블러레에는 악마들이 볼링을 치던 곳이라는 전설이 내려오는 지형답게, 기암들이 눈밭 여기저기에서 눈길을 사로잡는다. 빙하 위를 짜릿하게 건널 수 있는 구름다리, 티쏘 피크 워크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다리 위에 올라서서 4,000m 급 봉우리 24 개에 둘러싸여 보는 특별한 체험을 할 수 있다.

대단한 풍경으로 더 가까이 가기 위한 곳이 두 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정상 레스토랑 위쪽 언덕이다. 케이블카 역에서 밖으로 나와 스키 슬로프 언덕 위로 올라가면 알프스 전체가 발치 아래로 내려다보이는 듯한 파노라마를 만날 수 있다.

두 번째는 티쏘 피크 워크다. 두 산봉우리를 잇는 세계 최초의 도보 현수교가 아찔하게 출렁댄다. 케이블카가 운행되는 봉우리와 이보다 5m 가량 낮은 봉우리를 연결하는데, 낮은 봉우리까지 가면 아찔한 전망대가 나온다. 총 길이 107m, 너비 80cm 의 출렁다리는 마터호른, 몽블랑, 아이거, 묀히, 융프라우 봉우리의 절경을 펼쳐낸다. 특히 다리 위에서 바라보는 파노라마가 대단하다. 케이블카 역과 쉽게 연결된다.

주소
Glacier 3000
1865 Ormont-Dessus

16. 로이커바트(Leukerbad)의 겜미 롯지(Gemmi Lodge) 2350
로이커바트 온천은 과거 로마인들에 의해 처음 발견되었다. 샬레 마을 지붕 사이로 모락모락 김이 솟아오르는 풍경 때문에, 겨울이 더 따뜻한 느낌을 주는 마을이다. 지붕 위로는 1m 는 족히 될 것만 같은 눈이 보송보송 쌓여있는 진기한 풍경도 만날 수 있다. 예로부터 로이커바트를 더 유명하게 해 주는 명소가 있는데, 바로 겜미(Gemmi) 산이다. 발레(Valais) 주의 로이커바트와 베르네제 오버란트(Bernese Oberland) 주의 칸데르슈텍(Kandersteg)을 이어주는 알프스 고개, 겜미는 수많은 작가에게 영감을 준 길이다. 괴테, 쥘 베른, 피카소, 마크 트웨인, 모파상, 코난 도일이 이 고갯길을 넘으며 많은 영감을 얻었다. 이들에게 영감을 준 풍경을 만나려면 로이커바트 마을 끝자락에서 케이블카를 타고 겜미산에 오르면 된다. 바로, 겜미산 정상 케이블카 역에서 대단한 전망 포인트를 만날 수 있다. 겜미 롯지 2350 호텔이 케이블카 역과 연결되어 있는데, 이곳 레스토랑에 야외에 대단한 전망대가 마련되어 있다. 전망대의 스틸 구조물은 가파른 바위 면에서 약 10m 위에 설치되어 있다. 격자무늬 바닥과 비스듬한 유리 벽으로 인해 지구에서 300m 상공에 있는 듯한 느낌이 든다. 마치 바위벽 바로 위를 내려다보는 느낌이 든다. 전망대에 서면 900m 아래로 펼쳐지는 로이커바트(Leukerbad) 지역을 감상할 수 있다. 산장 식당에서 뢰슈티를 비롯한 스위스 전통 요리를 맛볼 것을 권한다. 창밖으로 펼쳐진 절경의 파노라마를 곁들여 훌륭한 식사를 즐길 수 있다.

주소
Gemmi Lodge 2350
Gemmipass
3954 Leukerbad

17. 베르니나 특급(Bernina Express)의 알프 그륌(Alp Grüm)
베르니나 특급은 설국의 엥가딘(Egadine) 계곡과 남국의 이탈리아를 연결하는 알프스의 다채로운 면모를 보여주는 아름다운 파노라마 기차다. 짐작이 되듯 높은 고도차로 인해 가파른 철도를 무리 없이 여유롭게 내려간다. 55 개의 터널과 196 개의 다리를 지나며 알프스의 깊숙이 자리한 겨울의 면모를 화려하게 펼쳐낸다. 베르니나 특급의 하이라이트는 유네스코가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한 구간, 즉 란트바써 비아둑트(Landwasser Viaduct) 다리와 나선형으로 굽이치며 하강 곡선을 그리는 구간인 베르귄(Bergün)과 프레다(Preda) 구간을 꼽을 수 있겠다. 구간 중, 잠시 기차에서 내려 그 대단한 풍경 속에 잠시 머무를 수 있는 곳이 있다. 알프 그륌(Alp Grüm) 역이다. 승강장을 따라 역사를 돌아가면 새빨간 기차가 새하얀 풍경 속으로 곡선을 그리며 하강하는 모습을 담아볼 수 있다. 역사에 있는 식당, 알베르고(Albergo Ristorante Alp Grüm)에서는 퐁뒤나, 메밀로 만든 전통 파스타인 피초케리(Pizzoccheri), 그라우뷘덴에서 말린 건조육을 풍성하게 맛볼 수도 있다.

주소
Albergo Ristorante Alp Grüm
7710 Poschiavo

18. 빙하특급(Glacier Express)의 엑셀런스 클래스(Excellence Class)
스위스 알프스 가장 심연한 풍경을 보여주는 빙하 특급(Glacier Express)은 스위스의 양대 VIP 스키 리조트인 생모리츠와 체르마트를 연결해 준다. 7 개의 계곡과 291 개의 다리, 91 개의 터널을 지나며 약 7 시간 30 분에 걸쳐 달리는 여행이다. 구름 속을 뚫고 올라 사람의 손길이 전혀 닿지 않은 알프스의 시골 풍경과 위엄한 알프스 절벽을 지나며 눈꽃이 화려하게 피어난 광경을 보여준다. 특히 아찔한 돌다리, 란트바써 비아둑트(Landwasser Viaduct)가 여정 중 하이라이트로 꼽히며, 해발고도 2,000m 이상인 오버알프 고개(Operalp Pass), 라인슐루흐트 계곡(Rheinschlucht Gorge), 푸르카 터널(Furka Tunnel)을 지나며 기막힌 절경을 감상할 수 있다. 빙하특급은 한 번 타면 중간에 정차를 하고, 또 다음 기차를 타기 힘들기 때문에, 전체 구간을 달리며 기차 안에서 그 여정을 순간순간 즐기는 것이 좋다. 7 시간 30 분이 금세 지나는 방법은 기차 내에서 식사와 와인, 각종 음료를 즐기는 것이다. 특히, 일등석보다 우위에 있는 엑셀런스 클래스 탑승 자체를 데이트 코스로 생각하는 노부부도 볼 수 있을 만큼, 더욱 안락한 좌석에 앉아 최고의 뷰를 즐기며 미식 체험을 할 수 있다. 와인을 곁들인 향토식 5 코스 런치가 대단한 풍경과 만나 더욱 근사하다. 중간중간 글래시어 바(Glacier Bar)를 이용해 봐도 좋다.

구간
생모리츠(St. Moritz) – 체르마트(Zermatt)

자료제공: 스위스정부관광청 www.MySwitzerland.co.kr